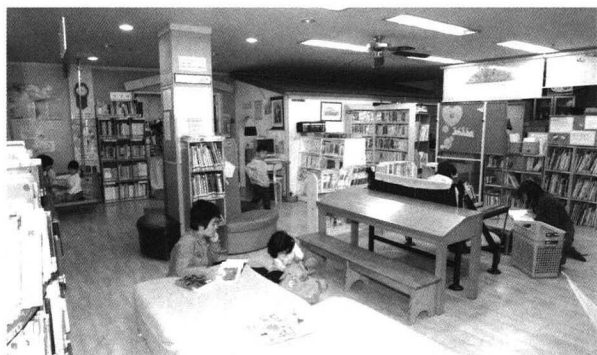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2% 갈증 느끼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가 없다?

어렵고도 쉬운 물음, '어린이도서관이란 무엇인가'

글_ 어유선(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도서관문화위원장·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



지난 4월 15일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짚어진 도서관법안에서 단연 두드러진 내용은 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이 도서관법 정의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서관 활성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어린이도서관의 지위가 법적으로 자리매김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운동 및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정책과 시행,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설립 등으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과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인 기적의 도서관 설립과 더불어 종로구 사직동에 하나뿐이던 공공어린이도서관이 노원에 이어, 구로와 서초에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운영된 민간 어린이도서관에 소폭이지만 지원금이 책정되고,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000개의 학교도서관이 현대화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03년에는 1,259개가 리모델링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 속에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은 이제 시작단계라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어린이도서관'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어렵고도 쉬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낮은 이용률, 저질의 책들

현재 민간 어린이도서관은 전국에 대략 100여 개로 추산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책에 다가갈 수 있는 재미난 활동과 책 읽어주기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작고 환경이 열악하며 개인적인 운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도서관 이용률을 낮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 속에 지원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은 공간은 작음에도 대부분 1만여 권 안팎의 어린이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책은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만화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세워진 공공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은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들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이용률이 낮은 이들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책들의 대부분이 만화, 베스트셀러, 괴기류 등 어린이들에게 권하기 어려운 책들이었습니다.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이용률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이용률이 다 낮지만 이는 단순비교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담당 사서가 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월 2회를 제외하고 열람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도서관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이용자가 적습니다. 즉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에 대한 어린이

● 도서관의 규모가 작고 환경이 열악하며 개인적인 운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도서관 이용률을 낮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은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서관을 정비했지만 책들은 오래되고 정리되지 않은 채 꽂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출해 가는 대부분의 책들은 어린이들이 읽으라고 하기에 유치하거나 조잡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도서관의 이용률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이나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5~6 배를 넘어서는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한 2시간 안팎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기에 어린이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설비와 환경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 아이들이 보는 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어린이들이 무슨 책을 보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보는 책은 만화책이거나 어른책의 다이제스트한 조잡한 베스트셀러류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찾아보거나 찾아달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기를 포기하거나 끈질긴 노력으로 찾는다 해도 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제일 책을 찾기 힘든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어린이도서관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 시설을 새로 꾸미고 첨단 장비를 들여다 놓고 책들을 들여놓았지만 도서관은 아이들의 책읽기공간이 아닌 숨통 틈우기의 만화방 공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그런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지만 어린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을 수 있으며 책을 읽고 책 속에서 상상과 꿈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제안하며

법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의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지만 실제로 어린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현행법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서관법의 47조는 독서진흥으로 모든 국민은 독서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대상자에 대한 세부규정이 정밀하지 못함으로 최근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혼선과 혼란마저 빚고 있습니다. 노원 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어린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청소년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독서진흥법조차 어린이를 만 18세까지로 보면서 어린이도서관에 청소년도서관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정밀한 연령적 고려는 필요하되 바로 연령적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이를 고려한 도서관 운영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유아와 초등, 청소년을 고려한 책의 분류와 배치를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아이들이 차분히 책을 볼 수 있도록 앉은 자리 어디에서나 쉽게 책을 찾고 보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책을 배치해 놓는 것이 어린이도서관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고려 속에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운영의 건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운영이 건실하게 되는 도서관은 예외 없이 도서관 운영자의 성실성과 책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합니다. 아울러 혼자가 아닌 함께 조직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나누고 책임자의 책임성을 존중해 주는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은 예외 없이 도서관에 새 책들이 자주 들어오며 이용자에게 책에 대해 안내해 주고 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어린이들이 하고 싶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독서인증제는 어린이들이 책을 읽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독서인증제의 발상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책을 읽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던 일을 강제로 하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들도 하기 싫어집니다. 더군다나 책임기를 잘 했는지 시험까지 본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왜 어린이도서관인가.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읽히기 위한 책을 공급해주는 곳이 아닌, 어린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싶은 곳, 그곳에서 찾아 읽은 한 권의 책이 그 어린이의 삶에 등대가 되는 기억으로 남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